

# 조선시대 도자기 가마의 명칭과 관요의 설치시기

김영원

- I. 머리말
- II. 사옹원 분원 관요
- III. 사기소와 분원 관요
- IV. 번조소와 분원 관요
- V. 자기소와 분원 관요
- VI. 분원 관요의 설치시기
- VII. 맺음말

---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주요 논저:  
「高麗時代 扶安 靑磁의 연구」(2006), 「비안도 해저 출토 고려 청자의 연구」  
(2009), 『조선 전기 도자사: 분원의 설치를 전후한 조선 전기 도자의 역사』  
(2011), 『조선시대 도자기』(2012), 「조선시대 도자기, 분청사기와 백자」(2013)  
등

# 조선시대 도자기 가마의 명칭과 관요의 설치시기

金英媛

## I. 머리말

미술사 연구에서 명칭과 그 용례에 관한 고찰은, 미술 양식 연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양식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규명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러므로 미술사 양식 연구의 전초 작업과도 같은 기본적인 과제라 하겠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에서는 문헌기록에 보이는 도자기 가마와 관련 명칭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조선시대 전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인 分院 官窯에 대해서도 몇몇 가마 명칭들과의 관련성 및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

주지하듯, 분원 관요는 왕실 소용 도자기를 대량 제작한 가마로서 司饔院이 직접 감독 관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곳이었다. 분원을 경기도 광주에 설치했고, 중앙관청에서 관리했으므로 관요라 부른다.<sup>1</sup> 분원 관요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청자, 분청사기, 백자의 양식 변화와 생산량 증감 등을 크게 좌우했고, 소위 '관요 양식'을 창출해 냈다. 아울러 관요의 운영과 관련하여 백토와 땀감 등의 채취 및 운반 등 여러 제반 문제가 조정에서 조선 후기까지 계속 논의된 사실에서 보듯이, 도자사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정책 수립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원 관요에 대해 '광주 관요', '광주 분원', '분원 관요', '광주 분원 관요' 등의 명칭으로 부르

1 경기도 광주 분원 관요에 대한 발굴·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시도록은 아래와 같다.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公社, 『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樊川里5호·선동리2, 3호』(1986); 문화재연구소·해강도자미술관, 『廣州의 白磁窯址 I: 京畿道廣州郡退村面觀音里窯址·草月面池月里窯址·都尺面宮坪里窯址』(1992);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附 廣州牛山里9號窯址 發掘調査報告,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特別展 圖錄』 21(1993); 국립중앙박물관, 『광주군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1995); 海剛陶磁美術館·天真庵聖域化委員會, 『廣州牛山里 白磁窯址』(1995); 海剛陶磁美術館, 『廣州牛山里 白磁窯址 II: 17號 白磁窯址 試掘調査報告書』(1999); 海剛陶磁美術館, 『廣州建業里 朝鮮白磁窯址: 建業里 2號 가마遺蹟 發掘調査報告書』(2000);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京畿道廣州中央官窯』(1998-2000); 경기도박물관, 『광주분원과 조선도자』(2001); 조선관요박물관·경기도 광주시, 『廣州의 朝鮮陶磁器窯址』(2004);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와 지방백자: 발굴·기증자료 특별전도록』(2005);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경기도 광주시, 『廣州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2007);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광주 관요: 종합분석 보고서』(2008); 경기도자박물관·도자진흥재단, 『분원백자전 I 조선후기 청화백자』(2009); 경기도자박물관, 『分院白磁의 생산·유통』(2011).

는 것은, 연구자들이 편의상 지역과 가마의 성격과 관리 주체를 고려한 결과이다. 혹은 ‘분원관요’라고 아예 붙여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자기 가마를 일컫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칭 몇 가지-沙器所, 燐造所, 磁器所에 대해 기록에서 용례를 확인하고, 각 명칭을 포함한 분원 관요의 개념을 보다 선명히 하고 관요와의 관련성을 살펴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sup>2</sup> 또한 분원 관요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도 필자가 20년 전에 주장한 연대-세조 13년(1467) 4월 이후 예종 즉위년(1468) 12월까지의 어느 시기-에 대해서 문헌사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대 폭을 보다 좁혀 보려고 한다.<sup>3</sup>

이 두 가지를 구명하기 위한 문헌사료로는 관찬 기록인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을 위주로 하겠다.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지리지>에 등장하는 陶器所, 자기소, 사기소에 대해선, 학계에 이미 널리 소개되었고 이미 일정한 성과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지리지>의 내용을 포함한 가마의 명칭 문제는 후일의 논문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하며 이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도기소의 경우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지리지에서 그 명칭이 발견되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자기소, 번조소, 자기소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 II. 사용원 분원 관요

御膳을 담당하는 사용원과 그에 소속된 하부기관인 광주 분원이라는 명칭과 그에 대한 기사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에서 검색 건수가 600건에 가깝다. 그 가운데 『승정원일기』에만 430건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에 30여 건에 비해 월등하게 빈번히 언급되었다. 더욱이 『승정원일기』가 인조 1년(1623)부터 고종 31년(1894)년까지의 기록인 점에서 보면, 분원 언급의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일성록』은 1752(영조 28)~1910년의 기록으로서, 분원에 대한 용례가 20여 건이므로 『조선왕조실록』의 용례와 비교한다면 기간 대비 빈도가 훨씬 많은 편이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숙종 23년(1697) 윤3월 광주 분원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내용,<sup>4</sup> 숙종 30년(1704) 12월의 사용원 분원 장인에 대한 均役 절목,<sup>5</sup> 숙종 40년(1714) 8월 양구현 백성들이

2 김영원, 「광주분원 관요 설치에 대한 재론-분원의 개념과 설치시기」(동양미술사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동양미술사학회 · 국립중앙박물관, 2014.6.4. 자기소 등 명칭 용례에 대한 발표요지 참조.

3 김영원, 「세조-성종연간의 分院의 設置와 陶磁樣式의 變遷」, 『美術史論壇』 2(한국미술연구소, 1995); 김영원,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서울: 學研文化社, 1995); 김영원, 「경기도 광주분원과 지방요」, 『광주분원과 조선도자』(경기도박물관 학술대회), 경기도박물관, 2001;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영원, 『조선전기 도자사』(서울: 일조각, 2011).

4 『肅宗實錄』 권31, 肅宗 23년 閏3월 6일.

5 『肅宗實錄』 권40, 肅宗 30년 12월 28일.

분원에 납품할 백토를 채굴하면서 압사하거나 노역하는 것을 임금에게 상소, 숙종 44년(1718년) 8월 사용원 번소인 분원의 移設 기사에서 분원이 언급된다.<sup>6</sup> 이후 영조 2년(1726) 분원 이설 기사,<sup>7</sup> 정조 7년(1783) 9월 廣州·楊根의 분원과 柴場 거주민의 戶稅 관련 기사,<sup>8</sup> 또 10월에는 비변사에서 경기어사 사목에 사용원 분원의 柴場의 관리와 종사자들에 대해 각별히 살피라는 등의 기사,<sup>9</sup> 정조 15년(1791) 9월과 19년(1795) 8월 등에는 분원의 갑기와 화기와 진상자기 및 백점토에 관한 기사,<sup>10</sup> 순조와 고종 연간에도 분원의 세금과 운영 방식 및 백토 확보 등과 관련된 기사들이 몇 군데서 보인다.<sup>11</sup>

다음으로 『승정원일기』에서 분원의 용례가 주목되는 것은, 다른 문헌보다 이른 시기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용례로서 지금까지는 인조 3년(1625) 8월의 기록이 주로 소개되었다.<sup>12</sup>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바, 그 한 달 전인 7월에 분원이라는 명칭이 이미 등장한 기사가 확인되었다. 인조 3년 7월 사기장을 적게 보내는 해당 수령을 추고하도록 사용원이 청하는 기사에서 이미 분원이라는 명칭이 나온다.<sup>13</sup> 장인이 매년 도망하여 원래 1,140명이었으나 821명만 남아 있어 장인의 부족으로 자기 제작이 곤란하므로 각 지역에서 장인을 호송해 와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방 수령이 조정의 명을 듣지 않으므로 장인을 분원에 차출하는 일을 이행하지 않은 수령을 추고하는 등 철저한 이행을 아뢰는 것이다. 한마디로 분원 장인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적은 내용이다. 이 기사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사용원에서 임금에게 아뢰는 말로서 ‘분원’의 설치를 위해선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이전 설치해야 한다는 분원의 설치 조건 및 환경을 감안한 운영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원을 ‘본원’이라고 했다.<sup>14</sup>

이렇듯 분원이란 명칭은 『承政院日記』에서 인조 3년 7월 기사에서 나온 이후 조선 말까지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분원의 운영 관리 및 폐단에 대한 기사들이다. 이 외에 『일성록』에서 정조 연간에 언급된 분원은 장인, 자기, 백토, 柴場, 세금, 폐단 등 운영 및 관리상의 각종 문제에 관해서 조정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헌사료를 통해 살펴보면, 분원은 다른 중앙관청의 하급기관을 지칭할 때도 간혹 사용되었으

6 『肅宗實錄』 권55, 肅宗 40년 8월 23일; 권62, 肅宗 44년 8월 19일.

7 『英祖實錄』 권10, 英祖 2년 7월 28일.

8 『正祖實錄』 권16, 正祖 7년 9월 22일.

9 『正祖實錄』 권16, 正祖 7년 10월 29일.

10 『正祖實錄』 권33, 正祖 15년 9월 24일; 권43, 正祖 19년 8월 6일.

11 『純祖實錄』 권32, 純祖 32년 9월 15일; 『高宗實錄』 권10, 高宗 10년 12월 1일; 2일; 권19, 高宗 19년 12월 29일; 권32, 高宗 31년 12월 27일. “...白土及雜費米, 竝以恒定代錢出給, 分院燔匠使往產土處買用之意分付爲宜”

12 『承政院日記』 8冊, 仁祖 3년 8월 3일. “分院之設, 自前擇其樹木茂盛之地, 移來移去...”

13 『承政院日記』 7冊, 仁祖 3년 7월 2일. “本院沙器匠, 法典內戶奉足并一千一百四十名內, 年年逃故稱頭, 只存八百二十一名...交付分院事, 令該曹發馬行會...”

14 『承政院日記』 8冊, 仁祖 3년 8월 3일.

나, 사용원의 관요로서의 분원의 용례를 보면 분원은 조정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고 조선시대 국가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존재였음이 파악된다. 아울러 분원이라는 명칭의 등장 시점이 향후 연구 대상의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인조 3년(1625) 7월 기사에서 언급되기까지 그 전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필자는 분원이 언급된 인조 3년 7월 이전에도 분원의 용례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다. 특히 다른 기록에 비해 『승정원일기』에서 분원이란 명칭이 빈도 높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인조 이전의 『승정원일기』가 소실되었으므로 현재까지의 사료만으로는 더 구체적인 시기를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언급된 기사의 횟수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사기소보다는 분원이라는 명칭으로 고착된 계기나 배경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

### Ⅲ. 사기소와 분원 관요

조선시대 도자기를 굽던 가마를 지칭하는 사기소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의외의 기사 속에 언급된다. 그 단적인 예가 태종 14년(1414) 윤9월 왕이 行幸할 때 강원도 橫川砂器所에 머물렀다고 하여 사기소가 왕이 유숙한 장소로 기록되고 있다.<sup>15</sup> 태종이 횡천사기소에 머무를 때 신하와 군사들에게 5일간의 식량을 주도록 하고 강원도 관찰사와 판원주 목사가 사냥개를 바쳤다고 한다. 이런 사실로 보면 왕이 신하와 군사들과 함께 횡천 지역으로 5일 정도 사냥을 나갔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으로 보면, 당시 사기소는 도자기를 굽는 곳이면서도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수행한 신하들과 함께 유숙하기도 했던 곳이었다고 파악된다. 이 시기는 관요가 설치되기 전이었으므로 전국적으로 도자기를 제작해서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던 공납체제에 속했다. 횡천은 태종 14년 횡성으로 지명이 변경되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橫城縣으로 소개되었는데, 횡성현에는 도기소나 자기소가 소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태종이 유숙한 당시에는 도자기를 제작했으나 후에 廢窯된 것으로 추정된다.

횡성사기소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으로 『세종실록』의 세종 1년(1419) 11월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때에도 왕이 원주에서 사냥을 하고 橫城沙器所에 유숙했다고 한다.<sup>16</sup> 기록상으로 태종연간부터 세종 1년(1419)까지 사기소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이 외에도 세종 8년(1426) 2월 15일과 그 다음날인 16일에도 왕이 사기소에 머물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sup>17</sup> 이 때 왕을 마중 나온 인물들이 강원

15 『太宗實錄』 권28, 太宗 14년 閏9월 7일.

16 『世宗實錄』 권6, 世宗 1년 11월 5일; 『世宗實錄』 「地理志」 강원도 원주목 횡성현에는 도기소나 자기소 그 어떤 곳도 표기되지 않았다.

17 『世宗實錄』 권31, 世宗 8년 2월 15일; 16일.

도 관찰사, 횡성 현감, 堤川縣監 등이므로 세종이 머무른 사기소는 강원도 지역으로서 동왕 1년에 머무른 적이 있는 횡성사기소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어쨌든 이런 사료들을 정리하면, 분명히 왕이 유숙한 곳으로서 횡성사기소라고 언급된 곳은 태종 14년(1414) 윤9월과 세종 1년(1419) 11월이었고, 그 후 세종 8년(1426) 2월에는 강원도의 사기소였는데 이 역시 횡성사기소로 짐작된다.

이후에는 횡성사기소에 왕이 유숙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을뿐더러 『세종실록』 「지리지」에 횡성의 자기소나 도기소 등 가마에 대한 기사가 없다. 따라서 지리지의 조사기간인 1424~1432년 사이에 가마가 폐요되었을 것인데, 세종 8년(1426) 2월 기사에 횡성사기소가 언급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횡성사기소의 폐요 시기는 1426년 2월 이후가 될 것이다. 즉 1426~1432년 사이로 추정된다.

세조 3년(1457) 1월에는 『세조실록』에는 경상도 草溪의 사기소가 소개되어 있다.<sup>18</sup> 이 초계사기소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도기소라고 표기된 곳이다. 초계군에 도기소가 1개인데 郡 동쪽 吾土要里에 있고 오직 누런 옹기(黃甕)를 만들며 중품이라고 했다.<sup>19</sup> 『경상도속찬지리지』(1469년 1월~3월)에도 초계군에 도기소 1개소가 '在郡東 品下'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1478~1530)에는 초계에 대한 기록이 없다.<sup>20</sup> 즉 『세종실록』 「지리지」에 도기소, 세조 3년(1457)에 사기소, 『경상도속찬지리지』(1469년 1월~3월)에는 도기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도자기소에 대한 어떤 표기도 없다. 이 같은 일련의 기록에 따르면, 초계군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보듯이 도기소가 있었는데 이후 세조 3년(1457) 사기소로 바뀌었고, 또 다시 도기소로 바뀌어 『경상도속찬지리지』에 표기되었다.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어떤 도자관련 명칭도 보이지 않으므로 1478년경이나 그 이전부터 도기소가 초계에선 사라졌다.

이 같은 기록상의 변화는 시대에 따른 도기소, 사기소의 명칭이나 성격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 흥미롭다. 아니면 뚜렷한 개념 없이 세조 3년에 도자기 굽는 곳을 뭉뚱그려 사기소라고 한 것인지(후술할 사료들 참조-『현종개수실록』, 『정조실록』 등) 확신이 서지 않는다. 어쨌든 요업의 지속 여부에 관해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어떤 표기도 없으니, 그 기초가 된 『팔도지리지』의 간행시기인 1478년부터,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481년을 거쳐,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된 1530년까지의 50여 년간 초계군에서 요업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1457년 경상도 초계라는 곳에 사기소가 있었다는 기록은 분명하기 때문에 가마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명칭 문제에 있어선 세조 3

18 『世祖實錄』 권6, 世祖 3년 1월 16일.

19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尙州牧 草溪郡. 陶器所一, 在郡東吾土要里. 專陶黃甕, 中品.”

20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초본인 『東國輿地勝覽』의 기초는 『八道地理志』였다. 『八道地理志』는 不傳하지만 세조(1455~1468) 초 梁誠之가 편찬을 하명 받아 성종 9년(1478) 완성되었다. 이후 『팔도지리지』를 기초로 하여 『동국여지승람』이 1481년에 50권이 편찬되었다. 이후 성종 16년(1485)에 1차, 연산군 5년(1499)에 2차 수정 작업을 거쳤다. 중종 25년(1530)에 55권의 증보판으로 간행된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도자기관련 기록은 신증된 것이 없이 1530년 발간되었으므로 1481년경과 도자관련 상황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년 전후에 도기소라고 불렀어도 사기소는 1457년을 전후한 시기에 무난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통용되었던 것 같다.

사기소에 대한 기사는 성종 19년(1488) 7월 광산(광주광역시의 옛 지명)의 토지 가운데 둔전과 사기소의 처리에 관한 책령에서도 보인다. 그 내용인즉, “…지금 光山의 토지를 다섯 고을에 갈라 붙였으니, 청컨대 屯田이 있는 곳과 沙器所는 그대로 본고을에 붙이도록 하소서. … 사기소는 여러 고을에 반드시 모두 있는 것이 아니고, … 둔전과 사기소를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는 것이다.<sup>21</sup> 이러한 내용은 성종 19년(1488)에 광주에서 사기소를 국가로부터 재지정 받은 사실을 전해 주며, 동시에 지방에 사기소가 중요한 존재로 기능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 사기소에 대해 관요 사기소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성종 24년(1493) 5월 18일에는 사옹원 提調였던 柳子光이 立釜와 臥釜에 대해 비교하면서 利川 점토를 부근의 관청으로 하여금 사기소에 운반하여 시험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다.<sup>22</sup> 여기서 사기소는 사옹원이 관리하는 광주의 분원 관요이다. 더욱이 관청으로 하여금 점토를 옮기게 한다면, 관요에 소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어 성종 24년(1493) 5월 25일에는,<sup>23</sup> 軍器寺都提調 盧思愼 등이 아뢰는 기록으로 “本司의 紫場 안에 沙器所를 옮겨 설치하고 …『大典』에 … 司饔院沙器所의 시장은 일정한 곳이 없으므로 땔나무가 무성한 곳을 따라 옮긴다. …彌羅洞은 廣州의 公私에 日用하는 땔나무를 하는 곳이니, 벌목을 금하지 말라.”고 했다. ‘사옹원 사기소’라고 분명히 지칭하였고 이는 광주 관요이며 紫場을 보전해 준다는 시책을 통해 관요의 운영방식에 관한 기사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중종 23년(1528) 5월의 기록에서는, “…사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沙器所에 잇따르고…”라고 했다.<sup>24</sup> 사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사기소에 잇따른다고 한 내용에 의문이 든다. 바로 위의 성종 24년(1493) 5월의 두 기사에서는 광주 관요를 사기소라고 했는데, 중종 23년(1528) 사기를 매매하는 이 사기소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기서 사기를 판매하는 사기소라 해도 왕실용 및 궁궐 자기를 제작하는 관요로서의 광주 사기소일 가능성이 크다. 왕과 대신들이 朝講에서 국사를 논하면서 언급했다면 광주 관요의 사기소를 말했다고 판단된다.

광주 분원 관요의 사기소의 백자 사번과 유출에 대해선, 세조연간인 1460년대 후반에도 몇 가지 기

21 『成宗實錄』 권218, 成宗 19년 7월 12일, “光山京在所堂上徐居正…書啓, 今光山土地割屬於五邑, 請屯田所在及沙器所, 仍屬本邑. …沙器所則諸邑未必皆有之, 光山雖無此里, 可以貿易而用. …光州既以降縣, 四面土地不須割屬. …屯田, 沙器所, 並還給何如. …傳曰, 屯田, 沙器所皆還之.”

22 『成宗實錄』 권227, 成宗 24년 5월 18일.

23 『成宗實錄』 권227, 成宗 24년 5월 25일. “軍器寺都提調盧思愼等來啓曰, 本司柴場內, 沙器所移排, 而今又退標禁止, 恐柴炭不足於用. 傳曰, 大典 軍器寺柴場二十里, 而司饔院沙器所柴場無定所, 隨薪木茂密處移徙. …彌羅洞乃廣州公私日用柴木所賴, 其勿禁伐.”

24 『中宗實錄』 권61, 中宗 23년 5월 16일. “…各司以酌獻禮後, 儒生供饋事, 貿易沙器者, 絡繹於沙器所. …”

사가 전해온다.<sup>25</sup> “진상용 백자 외에는公私處用을 일절 금하고 京外匠人이 몰래 번조하여 시장 및 朝官庶人의 집에서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자는 위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니, 당시의 문란했던 私鑪과 매매가 만연한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전해진다. 왕명으로 금할 정도이니 이 때 사변, 매매된 자기는 진상자기 수준이었다고 짐작된다. 그러므로 이 기사가 비록 분원 관요가 설치되기 전이었으나, 이 기사를 통해 왕실 및 궁궐자기로 사용할 자기의 유출이 심각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요가 설치된 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관요에서도 사변이 묵인되거나 관요를 이탈한 장인이 관요 주변의 가마[주변요]에서 사변하여 백자를 유출시킨 상황은, 중종 23년(1528)경부터 32년(1537)과 33년(1538)의 기사들을 통해 간파된다.<sup>26</sup> 중종 23년에 변방의 함경도와 평안도 등지의 각 고을에서 쓰는 器皿은 모두 廣州의 백자를 구입하는 사치 풍조의 폐단이 있으니 관찰사나 병사 등의 관리가 그 폐단을 제거하도록 임금께 아뢴 내용이 그것이다. 광주 가마에서의 백자의 매매 및 유출을 임금께 고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중종 32년에는 함경도 육진에서 서울서 사용하는 백자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서울 백자는 즉 광주 가마에서 조달한 백자이다. 그 이듬해에도 함경도에서 광주의 사기를 구입해가는 폐해를 고하므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기사에서는 분명히 광주에서 사기를 구매한다고 했다. 이런 기사들의 내용과 같이, 당시 변방까지 광주 백자의 매매와 유출이 심각한 폐단으로 부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종 연간의 자기 관련 상황을 감안하면, 중종 23년(1528) 5월의 기사에서 사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잇따르는 사기소는 광주의 분원 관요일 것이다. 더욱이 사기소의 실태를 임금과 대신들이 논의한다면 이는 분원 관요임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추세가 이후 10년 후에도 중종연간의 기사에서의 ‘廣州白器’(광주 백자), ‘京白器’(서울 백자), ‘廣州沙器’(광주 사기) 등과 연결되는데, 모두 분원 관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광주 분원 사기소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중종 25년(1530) 2월 “…沙器所에 차출하는 인원의 숫자를 恒式으로 정하였습시다…”는 것이다.<sup>27</sup> 광주의 사옹원 사기소에 인원을 차출하는 방식에 대한 것인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광주 분원이다. 그리고 선조 28년(1595) 5월에는, “전 直長 尹百順은 지금 驪州에 있고 司饗院奉事 尹百祥은 지금 사기소에 있다고 합니다.”는 기록이 있어 광주 관요를 사기소라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25 『世祖實錄』 권38, 世祖 12년 4월 18일, “傳旨司憲府… 一 磁器, 自今進上外, 公私處行用, 一禁. 京外匠人, 潛隱鑪造, 市裏及朝官, 庶人之家, 私相買賣者, 以違律論”; 권39, 世祖 12년 6월 7일, “工曹啓 白磁器 除進上及已前鑪造者外 自今公私 毋得用之 違者竝工人 以制書有違律 科罪 且勿定貢物 以防憑公私造之弊 凡白土產出處 令所在邑 禁盜用 無遺錄 薄 藏于本曹及承政院 從之.”

26 『中宗實錄』 권60, 中宗 23년 2월 6일; 권86, 中宗 32년 12월 19일; 권88, 中宗 33년 8월 18일.

27 『中宗實錄』 권67, 中宗 25년 2월 5일, “今又於沙器所, 恒爲定式 …”

28 『宣祖實錄』 권63, 宣祖 28년 5월 20일, “…而前直長尹百順, 今在驪州地; 司饗院奉事尹百祥, 今在沙器所云. …”



그런데 『승정원일기』에서 인조 3년(1625) 7월 분원이 언급된 후에도 사기소라는 명칭은 문헌에 계속 등장한다. 이를 테면 『顯宗改修實錄』 현종 14년(1673) 6월 충호사 김수홍과 김휘 등이 구릉과 신릉의 도로를 살핀 후 임금께 아뢰는 내용에서도 사기소를 언급하고 있다.<sup>29</sup> 구릉과 신릉 사이의 거리를 말할 때 利川과 사기소를 기준으로 삼아 멀고 가까움을 아뢰었다. 이렇게 지표를 삼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기소는 이미 공식적으로 지정된 광주 분원 관요임이 틀림없다. 이후 정조 10년(1786) 9월에는 충청도 관찰사 金光默이 아뢰기를, “...洪州의 西倉浦와 沙器所에 들러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는 내용이 있고,<sup>30</sup> 홍주의 사기소는 정조 17년(1793) 5월, 19년(1795) 1월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sup>31</sup>

이런 기록들로 보면, 이천과 함께 언급된 광주의 분원 관요 사기소, 그리고 홍주와 초계 등의 지방 소재 사기소가 존재했다. 이와 같이 사기소는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었고, 관행적으로 도자기를 굽는 곳을 총칭했다. 앞에 소개한 성종 24년(1493) 5월의 기록에서 보듯이 관요를 사옹원 제조가 ‘사기소’라고도 불렀지만, 중종 23년(1528) 5월의 기록과 같이 분원 관요를 시사하는 사기소에서 사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더욱이 1625년 분원이라는 명칭의 용례가 있음에도 『현종개수실록』 현종 14년(1673), 『정조실록』 정조 10년(1786), 17년(1793), 19년(1795)의 기록과 같이 ‘사기소’라는 명칭은 광주 관요와 지방의 가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이상 살펴 본 문헌의 사기소를 정리하면, 사기소가 왕이 유숙하는 곳으로도 기능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태종 14년(1414) 윤9월의 ‘횡천사기소’, 세종 1년(1419) 11월과 8년(1426) 2월의 橫城沙器所가 그것인데, 사실 횡천이 태종 14년 횡성으로 개명되었기 때문에 왕이 유숙한 곳은 같은 곳이다. 그리고 사옹원의 분원 광주 관요를 지칭하는 사기소는, 성종 24년(1493)의 ‘사옹원 사기소’와 『현종개수실록』 14년(1673)의 관요를 시사한 사기소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 사기소로는 성종 19년(1488) ‘전라도 광주 사기소’, 중종 23년(1528)의 관요 주변의 ‘사기소’, 정조연간의 ‘홍주 사기소’ 등이 있다. 이들 사기소는 광주와 지방에서 도자기를 만들거나 혹은 매매하기도 한 곳으로서 언급되었다.

요컨대 전국 여러 곳에 사기소가 산재해 있었고, 여러 사기소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광주 관요 사기소를 ‘사옹원 사기소’라고 특별히 지칭하거나 간단하게 ‘사기소’라고 불렀다. 전국의 도자기 굽는 곳을 사기소라고 부르는 것은, 관요가 설치된 전후를 막론하고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보편화된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기소란 광주 관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전국적으로 산재한 가마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통용되었고, 문맥으로 분원 관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29 『顯宗改修實錄』 권27, 顯宗 14년 6월 22일. “上曰, 自舊陵至利川幾里耶. 微曰, 自舊陵至沙器所, 八十五里, 沙器所至利川三十五里, 利川至新陵五十里, 而若自沙器所不取利川路, 而直向新陵, 則僅七十五里矣.” 참고로 『현종개수실록』은 『현종실록』(1677)을 수정 보완하여 1683년 간행되었다.

30 『正祖實錄』 권22, 正祖 10년 9월 20일. “忠淸道觀察使金光默啓, …臣於巡路, 歷往洪州西倉浦及沙器所, 躬審形便, …”

31 『正祖實錄』 권37, 正祖 17년 5월 27일. “...洪州高北面沙器所, 在本縣五里許...”; 권42, 19년 1월 7일. “...洪州沙器所一里...”

조선시대의 사기소에 대한 문헌 검토에서 얻은 의외의 결과는, 사기소가 도자기 제작지 외에도 왕이 유숙했던 곳으로의 기능도 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사기소는 분원 관요를 포함해서 지방의 가마를 가리키는 매우 포괄적이며 일반적으로 통용된 명칭이다. 따라서 사기소를 문헌기록에서 찾을 때는 담당 관청과 지명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문맥을 잘 확인해야 한다.

덧붙여 사기소가 마을이름으로 고착된 경우도 문헌기록에서 발견된다. 세조 3년 정축(1457) 2월 16일 吏曹에 傳旨한 내용으로 “평안도 郭山の 石峴과 定州의 防阿峴·泉峴, 外西陽 上沙器所·下沙器所 等地…”라는 기록이 있다.<sup>32</sup> 여기서 상하사기소는 마을이름이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기골, 사기동, 사기리, 사기막, 사기막골 등의 마을 이름들은 직간접으로 사기소와 관련되는 곳으로서 지속적으로 전해오는데, 실제로 가마터가 발견되는 곳도 있다.

#### IV. 번조소와 분원 관요

燔造所의 용례는 『승정원일기』에서 빈번하게 산견되며, 대부분 광주의 분원 관요를 지칭하며 도자기 굽는 것을 燔造라고 했다. 이 외에도 『일성록』에서도 그 용례가 발견되며, 의외로 『조선왕조실록』에선 ‘번조소’라는 가마의 개념으로서의 명칭보다는 굽는다는 ‘번조’의 용례가 주로 발견된다.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서 번조소는 광주 분원 관요를 감독 관리한 사용원에서 운영, 세금, 폐단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 명칭이 언급되었다. 특히 『승정원일기』에 그 용례가 많으므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승정원일기』에는 분원 관요를 ‘燔造所’라고 단독으로 부른 경우도 많지만, ‘司饗院燔造所’, ‘本院燔造所’, ‘分院燔造所’, ‘廣州燔造所’, ‘沙器燔造所’, ‘磁器燔造所’, ‘進上磁器燔造所’ 등으로 기록했다. 그 내용은, 앞에 소개한 현종 원년(1660)의 내용과 같이, 진상자기의 번조에 사용할 백토, 분원의 移設, 柴木, 번조소 장인 등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sup>33</sup>

『승정원일기』 현종 원년(1660) 6월 12일 사용원에서 제기 번조에 좋은 흙을 사용하고자 경주의 백점

32 『世祖實錄』 권6, 世祖 3년 2월 16일. “傳旨吏曹曰: 平安道郭山石硯, 定州防阿硯·泉硯, 外西陽, 上·下沙器所等地及隨川安義里, 割屬龜城郡”

33 『承政院日記』 256冊, 肅宗 2년 8월 28일; 298冊, 肅宗 9년 4월 3일; 350冊, 肅宗 18년 10월 28일; 370冊, 肅宗 23년 閏 3월 2일; 372冊, 肅宗 23년 7월 26일; 380冊, 肅宗 24년 8월 27일; 394冊, 肅宗 26년 11월 10일; 528冊, 景宗 卽位年 12월 17일; 555冊, 景宗 3년 6월 24일; 1063冊, 英祖 26년 12월 10일; 1064冊, 英祖 27년 1월 30일; 1110冊, 英祖 30년 8월 24일; 1123冊, 英祖 31년 9월 20일; 1134冊, 英祖 32년 8월 29일; 1408冊, 正祖 元年 10월 29일; 1687冊, 正祖 15년 2월 8일; 1737冊, 正祖 18년 10월 3일 등.

토를 사용하기를 청하는 내용이 있다.<sup>34</sup> 여기서는 사옹원 ‘본원’에 소속된 광주 분원 번조소를 시사했고, 보다 분명하게 ‘本院燔造所’라고 적시한 기사는 숙종 23년(1697) 3월과 7월, 경종 즉위년(1720) 12월과 3년 6월, 영조 31년(1755) 9월, 정조 15년(1791) 2월 등에 보인다.<sup>35</sup> 분원 관요를 ‘본원(사옹원에 속한) 번조소’라고 했다.

그리고 ‘사옹원번조소’라는 명칭은, 영조 32년 8월, 정조 원년 10월 등의 기사에서 언급되며, 이는 조선 전기에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옹원사기소’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분원번조소’는 숙종 24년(1698) 8월, 영조 30년(1754) 8월 등의 기사에 등장한다. 또한 ‘광주번조소’라는 명칭은 장인의 생활고에 대한 대책을 구하는 내용으로 숙종 23년(1697) 윤3월에 발견되며, ‘사기번조소’는 숙종 2년(1676) 8월 분원을 이설하기 위한 계획과 내용을 보고하며 언급되었다. ‘자기번조소’는 역시 분원 이설과 관련한 내용으로 숙종 18년(1692) 10월, 영조 27년(1751) 1월, 정조 18년(1794) 10월 등의 기사에 나오며, ‘進上磁器燔造所’는 영조 26년 12월의 기사에서 사용되었다.

이 외에 『일성록』에도 번조소의 명칭이 나오는 관련 기록이 있다. 정조 원년(1777) 10월 ‘사옹원번조소’에 납부하던 목조 등 품목 운반의 폐단에 대한 기사가 보인다. 여기서도 사옹원번조소는 분원 관요를 말한다.<sup>36</sup> 정조 17년(1793) 10월 3일 내의원에서 아뢰기를 번조소에서 (기명을 철 따라 規例에 맞게 진배하는데,) 진배하는 그릇의 시기도 맞추지 못하고 그릇의 모양도 잘못되고 숫자도 모자란다는 (도리에 어긋난) 점을 들어 사옹원의 번조관 등을 의금부에 잡아 법으로 다스리라는 내용이다.<sup>37</sup> 또한 사옹원, 본원, 분원, 번조소 등의 명칭은, 정조 18년(1794) 10월 사옹원 도제조가 분원의 누적된 폐단을 아뢰고 시정한 기사에서 각각 사용되었다.<sup>38</sup>

이런 사료의 용례를 보면, 사옹원, 본원, 분원, 번조소 등이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병기되었음이 확인되며, 분원, 번조소 등은 모두 광주의 분원 관요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번조소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재한 가마를 의미한 사기소와는 달리 주로 광주 분원 관요를 뜻한다.

34 『承政院日記』 162冊, 顯宗 원년 6월 12일, “李殷相, 以司饗院官員, 以提調意啓曰, 祭器燔造, 依上年舉行事, 傳教矣. 本院燔造所用原瑞兩土, 皆非精潔, 而他處則亦無可合之土, 上年不得已以慶州白粘土取用事, 入啓行會矣.”

35 『承政院日記』 528冊, 景宗 즉위년 12월 17일; 370冊, 肅宗 23년 閏3월 12일, “司饗院啓曰, 本院燔造所柴場折受處…”; 372冊, 肅宗 23년 7월 26일, “又以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院燔造所所用白土二百五十石…”

36 『日省錄』 正祖 1년 10월 29일, “其一春川 木槽一部 排板三立 間十年納于司饗院燔造所 而其長三十六尺二寸 廣爲三尺五寸 曳運之時 民弊甚大 長廣尺量宜減定事也 變通之意 請分付該院 從之.”

37 『日省錄』 442冊, 正祖 17년 10월 3일.

38 『日省錄』 473冊, 正祖 18년 10월 8일.

## V. 자기소와 분원 관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자기소와 도기소의 명칭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용례를 거의 찾기 힘들다. 다만 영조 19년(1743) 1월 사용원에서 磁器所의 白土를 전례에 의거하여 本道에서 差員을 정해 파서 보내도록 해야겠다고 아뢰는 내용에서 자기소가 언급된다.<sup>39</sup> 그리고 자기를 굽는 백토는 백성을 부려 강원도 楊口 땅에서 파내게 하였고, 본원의 郎官을 파견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자기소는 분원 관요를 지칭한다. 이 기사에서 사용원을 분원이라 했고, 사용원의 분원인 광주 관요를 ‘자기소’라고 지칭했다. 이것은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 분원 관요를 자기소라고 언급한 중요한 사례이다. 조선 후기에 분원 관요를 자기소라고 불렀던 기록은, 『승정원일기』 정조 15년(1791) 2월 8일 ‘磁器所의 燔木’에 대해, 『일성록』의 정조 18년(1794) 10월에는 “사용원 직장인 李永夏가 磁器所에 내려갔다”는 등에서 보인다.<sup>40</sup> 정조 연간의 이 두 기록에서 자기소는 모두 광주 분원 관요를 지칭하였다. 이 외에도 19세기말 貢人 池圭植이 쓴 『荷齋日記』(1891~1911) 등에서 발견된다.<sup>41</sup>

이런 기록들에서 자기소는 영조 이후 조선 말까지 등장하며 그 용례는 적지만 18, 19세기에 분원 관요를 지칭했다. 그러므로 자기소라는 명칭은 지리지 외의 기록에서는 그다지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 VI. 분원 관요의 설치시기

왕실자기의 전담 제작 가마로서 분원 관요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sup>42</sup> 하나는 조선 초부터 왕실에서 대내외용으로 필요한 사기의 양이 증가했고, 다른 하나는 전국적

39 『英祖實錄』 권57, 英祖 19년 1월 18일. “司饗院啓言, 今年磁器所白土, 依例自本道, 定差員掘送. 上允之. 先是磁器所燔白土, 役民掘取於江原道楊口地…”

40 『承政院日記』 1687冊, 正祖 15년 2월 8일. “…磁器所之燔木, 俱係國用所需… 分院則因外庫勿侵.”; 『日省錄』 473冊, 正祖 18년 10월 3일. 자기소의 용례에 대해, 이종민 선생은 논평에서 『일성록』과 지규식의 『하재일기』의 용례를 언급했다. 「조선 분원 관요와 동아시아의 도자교류 - 시공을 넘은 도자교류」(동양미술사학회 2014년 국제학술대회), 동양미술사학회 · 국립중앙박물관 공동 주최, 2014. 6. 4.

41 『하재일기』는 개인의 일기이며 시기적으로도 조선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걸치는 시기이므로 조선의 본류를 벗어난 조선 쇠망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관찬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한다.

42 김영원, 앞의 논문(1995); 김영원, 앞의 논문(2001); 김영원, 앞의 논문(2003); 김영원 앞의 책(2003).

으로 도자기 운반의 문제가 심각한 폐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관요를 설치하기 이전 도자기는 중앙에 貢納하는 중요한 稅源이었는데, 왕실소용 자기가 증가하고 수시로 공급받기 위해선 공납자기보다 많은 양의 자기를 확보해야 했고 궁궐에 가까운 곳에 가마를 둘 필요가 있었다.

조선 왕실에서 대내용으로 필요한 자기의 양이 증가에 대해선 여러 기록들에서 확인된다. 태종 7년(1407) 왕실소용 금은 기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대신 沙器를 썼는데,<sup>43</sup> 여기서 금은기를 대신한 사기는 백자일 것이다. 그리고 『慵齋叢話』에서 ‘세종조부터 백자를 전용하였다’고 하고, 세종 29년(1447) 6월에는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魂殿인 文昭輝德殿에서도 銀器를 백자로 대신하였다고 하니, 세종 연간에는 왕의 일상용기 외에도 1447년경부터는 상당수의 儀器가 백자로 제작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世宗實錄』 「五禮」에는 백자나 청화백자가 의기로서 소개되었다. 백자와 청화백자의 사용이 더욱 증가한 시기는 세조 연간이었고, 특히 청화백자의 사용과 제작 시도가 주목된다. 세조 원년(1455) 윤6월에는 공조에서 中宮殿에 사용할 金盞을 만들기를 청했으나 왕은 금잔대신 청화백자를 사용하도록 했고, 동궁에서도 자기를 쓰도록 했다.<sup>44</sup> 또 세조 9년(1463), 10년(1464) 강진·밀양·의성 등지에서 靑料를 구해 바치거나 청화백자를 번조하여 진상했다.<sup>45</sup> 이처럼 조선 초부터 백자와 청화백자에 대한 왕실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당시의 경향이었다.

조선 왕실에서 대외적으로 고급 도자기를 필요로 한 사례로는, 세종 5년(1423) 明使 海壽가 자기를 요청했고, 세종 6년(1424) 중국사신을 접대할 자기가 필요했으며, 세종 7년(1425)에는 명 仁宗 洪熙帝가 10卓分の 최상품 조선 백자를 요청했고, 세종 11년(1429) 명사가 조선의 자기를 요구한 일들이 있다.<sup>46</sup> 이와 같이 대명관계에서도 고급 백자가 상당량 필요했다. 이렇듯 세종 초부터 백자는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수요량이 증가했고, 세조 연간에는 왕실 소용 백자를 다량 확보할 필요가 더욱 절실했다.

이처럼 왕실의 절대적 필요에 의해 백자와 청화백자는 왕실가마에서 집중적으로 제작해서 납품하게 되었고, 사용원의 하급부서로서의 분원 관요가 설치되었다. 분원 관요를 설치한 시기에 대해, 필자는 세조 말 예종 초인 1467년 4월 이후 1468년 말 사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sup>47</sup> 일찍이 정양모 선생

43 『太宗實錄』 권13, 太宗 7년 1월 19일. “金銀器皿 除內用國用外 下令中外 一切禁止 國中皆用沙漆器”

44 『世祖實錄』 권1, 世祖 원년 閏6월 19일. “工曹請造中宮酒房金盞, 命以畫磁器代之, 東宮亦用磁器”

45 『世祖實錄』 권1, 世祖 원년 閏6월 19일; 권30, 世祖 9년 5월 24일; 권34, 世祖 10년 9월 13일. “慶尙道觀察使 採進蔚山郡所產 深重靑土靑三靑”

46 『世宗實錄』 권21, 世宗 5년 8월 28일; 권25, 世宗 6년 8월 18일. “工曹 據平安道監司關啓 道內本無磁器匠”; 권27, 世宗 7년 2월 15일. “左副代言金楮問安于使臣 尹鳳曰 造紙方文及沙器進獻 有聖旨 楮問曰 沙器數幾何 許鳳曰 數則無聖旨 然吾心以謂十卓所用 每卓大中小椀各一 大中小櫛兒各五 及大中小獐本十事可也 且曰 勅書不載 而如此請之者 予本無私藏 將用之何處乎 金楮將此言以啓 卽傳旨于全羅道監司 全州紙匠 給驛上送 傳旨廣州牧使 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 精細礮造以進”; 권44, 世宗 11년 6월 10일. “大護軍尹重富 進白磁靑花大鍾一事 賜米豆二十石.”

47 김영원, 앞의 책(1995); 김영원, 앞의 논문(1995).

은 李魯의 『松岩集』에 선조 3년(1570)의 ‘司饔分監官’과 관련된 기록을 근거로 경기도 광주에 분원이 설치된 시기를 선조 3년(1570) 이전이라고 했다.<sup>48</sup> 강경숙 선생은 1467년 사용방이 사용원으로 개칭된 점, 『성종실록』 성종 24년(1493) 사용원 提調였던 柳子光이 利川 점토를 부근 관청으로 하여금 광주 사기소에 운반하도록 한 기록, 그리고 『경국대전』과 『동국여지승람』의 기록들을 근거로 사용원 분원의 설치 연대를 1469~1470년 전후라고 추정하였다.<sup>49</sup>

필자가 제시한 1467년 4월경이라는 분원 관요의 설치시기는 20년간 검증 기간을 거쳤다.<sup>50</sup> 당시 이 연대에 근거로 삼은 문헌사료는 『世祖實錄』, 『睿宗實錄』, 『經國大典』 「工典」(1466~1469)과 「刑典」 禁制條(1467년 12월), 『세종실록』 「지리지」(1424~1432), 『경상도속찬지리지』(1469년 1월~3월), 『睿宗實錄』 睿宗 元年 6月 梁誠之의 貢物分定에 관한 상소문 등이다.<sup>51</sup> 『경상도지리지』(1424~1425)와 『신증동국여지승람』(1481)은 방증사료로 삼았다.

그런데 필자가 제시한 설치시기에 대해 문헌사료를 재검토를 함에 있어, 분원 관요의 설치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사료는 세조 12년(1466) 4월과 6월, 그리고 13년(1467) 4월 및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1467년 12월)의 기사라는 판단을 갖게 되었다.<sup>52</sup>

먼저 세조 12년(1466) 4월의 기록은, “磁器는 이제부터 進上하는 것 외에, 公私處에서 널리 행하여 쓰는 것을 일체 금한다. 京外匠人이 몰래 숨어서 자기를 만들어 시장과 朝官庶人의 집에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자는 위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다.<sup>53</sup> 이 기사는 분명 백자의 사용을 왕실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었으니, 질 좋은 백자가 대량생산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왕실 진상 백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어기로 백자를 전용한 세종 연간의 기조가 세조 연간에도 지속된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조치들은 조선 초기와 전기에 수차례 걸쳐 시행되었다. 더욱이 백자를 公用으로도 금했기 때문에 백자의 사용 범위를 왕실 진상용으로만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왕실 전용 관요를 설치하기 위해 법전에 명시된 법령은 아니다. 다만 세종~세조 연간의 백자 제작과 용처를 살펴 볼 때, 왕실용으로 대량의 고급 백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은 전달된다.

다음으로 세조 12년(1466) 6월의 기사는, “白磁器는 進上과 이전에 燔造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公私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람은 工人까지도 위법한 것으로서 科罪하도록 하고,

48 鄭良謨, 『한국의 도자기』(서울: 문예출판사, 1991), p. 485.

49 姜敬淑, 『한국도자사의 연구』(서울: 시공사, 2005), pp. 406~407.

50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광주분원과 지방요』(2001).

51 『睿宗實錄』 권6, 睿宗 1년 6월 29일.

52 『世祖實錄』 권42, 世祖 13년 4월 4일. “改司饔房爲司饔院. 始置祿官.”; 김영원, 앞의 책(1995), pp. 53~54.

53 『世祖實錄』 권38, 世祖 12년 4월 18일. “傳旨司憲府… 一磁器, 自今進上外, 公私處行用, 一禁. 京外匠人, 潛隱燔造, 市裏及朝官, 庶人之家, 私相買賣者, 以違制律論.”

또 貢物을 정하지 말고서 公事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무릇 백토가 산출되는 곳은 所在邑으로 하여금 盜用을 금하고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工曹와 承政院에 간수하게 한다”는 내용이다.<sup>54</sup>

이 기사는 당시에 백자가 풍족한 상황은 절대 아니며, 또 여전히 백자를 貢物로 정했음을 시사한다. 백자가 공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백자를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백토 산출지를 장부에 기록해서 工曹와 承政院에 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6월 기사에는 일부 4월 기사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백자를 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반한 장인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4월 사헌부에서 위법으로 다스린다고 해도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으로서, “백자가 貢物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빙자하여 백자를 사변한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면, 당시 전국적으로 공물을 빙자해서 백자를 사사로이 제작했으니, 백자는 공물이었고 또 왕실 납품의 공납백자만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결국 백자를 왕실용으로만 제한하기 위해 백자의 원료가 되는 백토 산지의 장부를 공조와 承政院에 둔다고 한 것이다. 공물을 빙자하여 백자를 제작하는 일을 금하기 위한 백토 관리 조치이다.

그리고 기사에 나오는 백토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세종 연간에도 명 홍희제가 조선 자기를 요청할 때 광주목사에게 전지하여 백자를 굽게 한 것처럼, 관요 설치 이전이라도 왕실 소용 백자의 제작에는 좋은 백토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했기 때문에, 백토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언제든지 시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분원 관요를 설치한 후에는, 여러 기록에서 보듯이 관요에 필요한 백토를 관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그 용처를 언급하는 단어나 문맥이 이어지곤 했다. 최소한 관리기관으로서 사용원이나 사용원 관원 등이 언급되었다.<sup>55</sup> 아니면, 분원 관요에 도달할 백토는 굴취와 관련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폐해나 관료들의 비리 등에 대한 것 등이 주를 이룬다.<sup>56</sup> 이런 이유로 6월 기사에서 ‘백토 산출지’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백토 산출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공조와 承政院이 동원되어 백토 장부를 기록하자고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6월의 기사는 백자의 사용을 공적, 사적으로 모두 제한하여 4월의 조치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다.

54 『世祖實錄』 권38, 世祖 12년 6월 7일. “工曹啓, 白磁器, 除進上及已前播造者外, 自今公私, 毋得用之. 違者竝工人, 以制書有違律, 科罪. 且勿定貢物, 以防憑公私造之弊. 凡白土產出處, 令所在邑, 禁盜用, 無遺錄簿, 藏于本曹及承政院. 從之.”

55 『中宗實錄』 권67, 中宗 25년 2월 5일. “且沙器播造白粘土 … 古者沙器匠果多, 而今則爲半逃亡 …”; 『光海君日記』 권172, 光海 13년 12월 11일; 『承政院日記』 仁祖 9년 11월 12일. “司饔院官員以都提調意啓曰, 進上磁器播造所用白粘土掘取官牒呈內 ‘掘土軍人’ …”; 『承政院日記』 372冊, 肅宗 23년 7월 26일. “又以司饔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院播造所用白土二百五十石 …”

56 『光海君日記』 권172, 光海 13년 12월 11일; 『肅宗實錄』 권47, 肅宗 35년 7월 14일.

이렇게 백자에 각종 제재 조치를 시행한 시기를 거쳐 분원 관요의 설치를 분명하게 적시하는 기사가 세조 13년(1467) 4월에 보인다. “사용방을 사용원으로 고치고 비로소 녹관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인데,<sup>57</sup> 이는 행정 제도의 개편을 언급한 것이다. 이 기사는 사용원의 분원의 탄생을 함축하고 녹관을 두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취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기사를 근거로 분원 관요의 설치 시기에 세조 13년 4월이라는 필자의 종래 주장을 견지하고자 한다.<sup>58</sup>

또한 분원의 설치를 시사하는 중요한 기사는 1467년 12월 印頒된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의 내용이다.<sup>59</sup> 이 조항에선 “관직을 가진 大小員人은 酒器 외의 靑畫白磁 사용을 금하여 이를 어길 시엔 장 80대에 처하며, 庶人은 남녀 불문 청화백자 주기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sup>60</sup>

이 조항과 같이 이 금지법은 청화백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종~세조 연간에 백자가 어용으로 제한된 공물이었고, 세조 12년(1466) 4월, 6월의 백자를 어용으로만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불과 1년 전인 세조 12년 만해도 백자는 여전히 왕실 공납품으로 제한하는 등 여러 제재 조치가 있었음을 앞에서 소개하였다.<sup>61</sup> 세조 원년(1450)에 비로소 중궁전에서 靑華白磁[靑華白磁]를 쓰도록 했고, 세조 9년(1463) 이후 왕실 주도 하에 청화백자의 제작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음에도,<sup>62</sup> 백자를 대상으로 어용 외 공사용 사용금지 조치를 계속 공포해 왔다. 그러나 1년 만에 『경국대전』 형전의 금제조에서 청화백자의 어용 외 금지법은, 왕실에서 확보하고자 큰 관심을 둔 도자기는 백자가 아닌 청화백자임을 단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백자를 굳이 금지나 제재 조항으로 묶어 둘 필요가 없게 된 변화의 배경에는, 분원 관요가 이미 설치, 운영되어 왕실용 백자를 대량공급하는 안정적인 조달 체계가 확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풍부해진 백자에 비해 청화백자는 귀해서 어용으로만 제한했고 그 불법 사용에 대한 논의가 조정에서 계속되었다. 『경국대전』 「형전」 금제조의 내용과 같이 청화백자는 어용 외의 수요처에 대해선 철저한 금지 대상 품목이었다. 청화백자의 사용 금제는 성종 연간에도 계속되었다.<sup>63</sup> 이런 점에서 보면, 분원 관요의 설치

57 『世祖實錄』 권42, 世祖 13년 4월 4일. “改司饗房爲司饗院. 始置祿官.”

58 김영원, 앞의 책(1995).

59 『經國大典』 초판본인 『丙戌年大典』은 주로 관직의 명칭을 更新하여 관제정비를 꾀하는 작업을 거쳐 세조 12년(丙戌年: 1466) 정월 편찬 완료되었다. 이 대전을 계속 검토·논의하여 세조 13년(1467) 12월 『經國大典』 「戶典」과 「刑典」이 반포되었고, 「吏典」, 「工典」, 「禮典」, 「兵典」은 교정이 계속되어 성종 원년(1469) 9월 반포되었다. 따라서 사용원과 관련된 「공전」의 내용은 「병술년」(1466) 이후 1469년 사이에 해당된다.

60 『譯註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61 『世祖實錄』 권38, 世祖 12년 4월 18일; 권39, 世祖 12년 6월 7일.

62 『世祖實錄』 권1, 世祖 원년 閏6월 19일. “工曹 請造中宮酒房金盞 命以靑磁器代之 東宮亦用磁器”; 권30, 世祖 9년 5월 24일; 권31, 世祖 9년 閏7월 3일; 권34, 世祖 10년 8월 7일; 9월 13일.

63 『成宗實錄』 권77, 成宗 8년 閏2월 10일; 13일.



후 백자의 대량생산과 관계없이 청화백자의 사용 금지법과 시행은 왕실과 대신의 중요한 정부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듯 『경국대전』 「刑典」의 청화백자 금제에 관한 내용은 왕실의 도자기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백자에서 청화백자로 바뀌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법조문이다. 그렇다면 백자의 대량 공급으로 그에 대한 제재 조항이 사라지는 시기, 즉 관요의 설치시기는 『경국대전』 형전이 반포된 1467년 12월 이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분원 관요의 설치시기는 사용방에서 사용원으로 개칭하고 정식으로 祿官을 두는 세조 13년(1467) 4월경을 上限으로 보고, 下限은 『경국대전』 「刑典」 禁制條를 근거로 세조 13년 12월로 설정하고자 한다.<sup>64</sup> 하한은 필자의 종래 주장에서 일 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후 『慶尙道續撰地理誌』(1469년 1월~3월)에서 상품자기소가 사라진 점이나 『睿宗實錄』 睿宗 1年(1469) 6月 공조판서 梁誠之의 貢物分定 관련 상소문,<sup>65</sup> 『經國大典』 「工典」(1466-1469)의 '사용원 소속 자기장인이 380인'이라는 내용 등은 분원 관요의 설치시기에 대한 강력한 방증자료가 된다.<sup>66</sup> 특히 예종 1년 양성지의 공물분정에선 도자기가 이미 공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분원 관요에서 백자가 대량으로 궁궐에 진상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경국대전』 「공전」에서 사용원 자기장인의 수를 명시한 것은, 1467년 4월(세조 13년 사용원으로 개칭, 녹관을 둠) 이후 1467년 12월(『경국대전』 「형전」의 청화백자 금제조) 사이의 관요 설치와 직결된 기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분원 관요의 설치시기인 1467년 4월경 사용원에 소속된 중앙 관요를 운영하기 위해 소속 자기장인에 대해 확실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VII. 맺음말

조선시대 문헌 자료에는 分院, 陶器所, 磁器所, 沙器所, 燐造所 등이 나오는데, 이들 명칭의 개념과 관련성 등을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한 각종 지리지에서 주로 사용된 도기소는 제외하였다.

분원이란 명칭은 『승정원일기』에 430건,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에 30여 건에 이른다. 기사 내용은, 분원의 장인, 백토, 세금, 시장 등 관요로서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승정원일기』가 인

64 『世祖實錄』 권42, 世祖 13년 4월 4일; 김영원(1995), 앞의 책.

65 『睿宗實錄』 권6, 睿宗 1년 6월 29일.

66 앞의 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經國大典』 초판본인 『丙戌年大典』이 세조 12년(1466) 정월 편찬되었고 그 후 교정기간을 거쳐 「공전」은 성종 원년(1469) 9월 반포되었다. 그러므로 「공전」의 내용은 1466~1469년의 연대폭을 가지며 사용원 분원 관요의 설치와 직결된 시기의 기록일 수도 있다.

조 1년(1623)부터 고종 31년(1894)년까지의 기록인 점에서 보면, 분원 언급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분원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으로 지금까지는 『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 8월의 기록이 주로 소개되었으나, 그보다 한 달 전인 인조 3년 7월 분원 사기장을 차출하는 기사가 더 이른 것이다.

사기소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었고, 주로 지명과 함께 언급되었으며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된 명칭이다. 따라서 여러 사기소 가운데 하나로서 경기도 광주의 관요의 경우 사기소를 ‘司饗院沙器所’라고 특별히 지칭하거나 간단하게 ‘사기소’라고 불렀다. 즉 사기소란 광주 관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당시 전국적으로 산재한 가마를 지칭하는 매우 포괄적이고도 일반적인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예컨대 횡천사기소, 홍주 사기소, 광산사기소 등과 같이 지명과 함께 불렀다. 그런데 사기소의 기능이 도자기 굽는 일 외에도 도자기를 매매하고 왕이 유숙했다는 의외로 사실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변조소의 경우, 특히 『승정원일기』에서는 분원 관요를 ‘燔造所’라고 호칭한 경우도 많지만, ‘司饗院燔造所’, ‘本院燔造所’, ‘分院燔造所’, ‘廣州燔造所’, ‘沙器燔造所’, ‘磁器燔造所’, ‘進上磁器燔造所’ 등으로 병용했다. 『일성록』에도 사옹원, 본원, 분원, 변조소 등의 명칭들이 보인다. 변조소에 대한 기사는 진상자기의 변조에 사용할 백토, 분원의 移設, 柴木, 변조소 장인 등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며, 사기소와는 달리 변조소는 주로 광주 분원 관요를 가리킨다.

사기소와 도기소의 명칭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외로 그 용례를 거의 찾기 힘들다. 다만 자기소는 몇 군데 기사에서 언급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영조 19년(1743) 1월, 『승정원일기』 정조 15년(1791) 2월, 『일성록』 정조 18년(1794) 10월 등에서 모두 분원 관요를 지칭했다.

이상과 같이, 사옹원의 분원 관요는 관찬기록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다. 다른 중앙관청의 분원도 있지만, 사옹원의 분원은 조정에서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고 당시에 이미 널리 통용된 명칭이었다. 그리고 분원 관요와 다른 명칭들을 혼용 또는 병용한 용례들이 산견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광주 관요는 ‘본원 사옹원의 분원 사기소’, ‘본원 사옹원의 분원 자기소’, ‘본원 사옹원의 분원 변조소’ 등인데 축약해서 분원이라 불렀다. 지금도 분원은, 본질적으로 조선 관요라는 개념으로서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용어이다. 『승정원일기』의 소실로 ‘분원’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인조 3년 7월이지만, 소실된 기록 가운데 분원이 언급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분원의 설치시기에 대해선, 직접적인 근거 자료로 『세조실록』 세조 12년(1466) 4월과 6월의 기사, 세조 13년(1467) 4월의 기사, 세조 13년(1467) 12월 印頒된 『經國大典』 「刑典」의 禁制條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그리고 『經國大典』 「工典」(1466~1469), 『睿宗實錄』의 예종 1년(1469) 6월 공조판서 梁誠之의 貢物分定에 관한 상소문, 『세종실록』 「지리지」(1424~1432), 『경상도속찬지리지』(1469년 1월~3월) 등은 직결되지는 않지만 확실한 방증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분원 관요의 설치시기를, 세조 13년인 1467년 4월에서 12월 사이로 조정하고자 한다. 관요의 개시연대는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 4월의 기사에 근거했다. 1467년 4월 사

옹방에서 사옹원으로 개칭하고 정식으로 祿官을 두었으므로 이것은 관요의 개시를 의미한다. 이는 필자의 종래 주장과 같다.<sup>67</sup>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가장 강력한 법조문이 『경국대전』 「공전」의 사기장인에 관한 기록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관요 설치시기의 하한을 필자는 종래 1468년 12월로 추정했다.<sup>68</sup> 그런데 이 글에서는 문헌사료를 재검토한 결과, 1467년 12월로 앞당길 수 있었다. 『경국대전』 「형전」 금제조의 청화백자 사용 금지법이 매우 결정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 1년 전인 세조 12년(1466) 4월과 6월의 기사는, 백자가 여전히 공납품이었고 왕실로 제한되는 등의 엄격한 제재 조치이다. 세조 12년의 2회에 걸친 제재 조치로도 왕실 백자의 확보가 크게 미흡했으니, 이듬해인 세조 13년(1467) 사옹원으로 개칭하고 직접 실무를 담당할 녹관을 두어, 사옹원의 분원 관요를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형전」이 반포된 1467년 12월에는 이미 관요가 설치, 운영되었다고 간주된다. 관요에서 백자를 대량생산함으로써 왕실 및 궁궐용 백자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당시 부족했던 청화백자에 대해서만 어용 외에는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 글이 문헌사료에서 도기소와 자기소, 그리고 도기, 자기, 사기 등에 대한 구분 기준과 개념 등에 대한 파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분원, 관요, 사기소, 번조소, 자기소, 관요설치 시기

▮ 투고일 2014. 9. 20. | 심사개시일 2014. 10. 21. | 게재확정일 2014. 11. 17. ▮

67 『世祖實錄』 권42, 世祖 13년 4월 4일; 김영원, 앞의 책(1995).

68 김영원, 앞의 책(1995).

## Terms Used to Refer to Kilns of the Joseon Dynasty and Establishment Dates of the Kilns

Youngwon Kim\*

Over the years, many different terms have been used to refer to the ceramics kiln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ose terms have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or standardized. In particular, the term “Bunwon Gwanyo” is an academic keyword often used in discussions of the ceramics and the official kilns of the Joseon Dynasty; a bunwon was a branch kiln of the Joseon Dynasty, and a gwanyo was a royal kiln, the highest level of official kiln. However, there are many variations of this term, including Gwangju Gwanyo; Gwangju Bunwon; Bunwon Gwanyo; Gwangju Bunwon Gwanyo; and Gwang Sagiso.

For this study, relevant historical documents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meaning and use of different terms used to refer to kilns during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sagiso, beonjoso, and jagiso. Also, it had previously been estimated that the Bunwon Gwanyo was established some time between April 1467 and December 1468; through analyses of historical sources, however, we were able to narrow down the estimated time range for the establishment to some time between April and December 1467.

Both of these studies were based on governmental historical sources, including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eungjeongwon Ilgi (Journal of the Royal Secretariat); and Ilseongnok (Records of Daily Reflections). The related terms dogiso and jagiso also appear in various historical and geographical records, including Sejong sillok jiriji (Annals of King Sejong); Gyeongsangdo Jiriji (Geographical Record of Gyeongsang-do Province); Kyungsangdo Sogchan Jiriji (Further Records of Gyeongsang-do Province); and the geography book Sinjeungdonggugyeojiseungnam; however, these sources were not examined for this study, as they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in academia.

---

\* Ph.D of Art History, Former Head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earliest known use of the term bunwon occurs in Seungjeongwon Ilgi from July 1625, (third year of King Injo). The term bunwon appears at least 430 times in Seungjeongwon Ilgi, which includes records from 1623 (first year of King Injo) through 1894 (thirty-first year of King Gojong). It is estimated that more references to the term bunwon likely appeared in the records that preceded the reign of King Injo, but unfortunately those records have been lost.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e term sagiso was used to comprehensively refer to kiln sites across the nation, usually in conjunction with a geographical place name. For example, Gyeonggi-do Gwangju Gwanyo was a sagiso, and was also sometimes referred to as Saongwon Sagiso. Other examples of sagiso include Hoengcheon Sagiso, Hongju Sagiso, and Gwangsan Sagiso. A sagiso was a kiln where ceramics were not only fired and produced, but also sold; remarkably, records further show that kings sometimes lodged at a sagiso.

In Seungjeongwon Ilgi, Bunwon Gwanyo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beonjoso and related terms, such as Saongwon Beonjoso, Bonwon Beonjoso, Bunwon Beonjoso, Gangju Beonjoso, Sagi Beonjoso, Jagi Beonjoso, and Jinsangjagi Beonjoso. Ilseongnok also uses the terms Saongwon, Bonwon, Bunwon, and beonjoso. Unlike the term sagiso, beonjoso was generally used to refer to the Gwangju Bunwon Gwanyo.

The terms jagiso and dogiso are used extensively in Sejong sillok jiriji (Annals of King Sejong), but it is surprisingly difficult to find those terms in other records. However, jagiso does appear in some records. For example, jagiso is used in reference to Bunwon Gwanyo in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n January 1743 (nineteenth year of King Youngjo); in Seungjeongwon Ilgi in February 1791 (fifteenth year of King Jeongjo); and in Ilseongnok in October 1794 (eighteenth year of King Jeongjo).

One term that is commonly used in discussion of Bunwon Gwanyo is Saongwon, which refers to the Joseon government office in charge of providing food for the royal court. There were bunwons associated with other central governmental agencies, but the bunwon of Saongwon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kilns, and the name was prevalent. However, the term Bunwon Gwanyo was often used with other terms. In the records, Gwangju Gwanyo is respectively referred to as Bunwon Sagiso of Bonwon Saongwon; Bunwon Jagiso of Bonwon Saongwon; Bunwon Beonjoso of Bonwon Saongwon; and simply bunwon. To date, a bunwon has been defined as a Gwanyo of Joseon, as bunwon is the primary term use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Again, bunwon is first mentioned on July 1, 1625 (third year of King Injo) in Seungjeongwon Ilgi, but the earlier records have been lost. As such, it is currently not possible

to determine when the term might have originally come into use.

Keywords : Bunwon(branch kiln 分院), Gwanyo(royal kiln 官窯), Sagiso(沙器所), beonjoso  
(燔造所), Jagiso(磁器所), Establishment Date of Bunwon Gwanyo